

<잡종사회와 그 친구들>을 읽고
잡종적 접근: 기대와 과제

서병훈 (송실대학교)

1. 이 책은 대작이다. 분량은 물론이고 그 다루는 범위가 평범하지 않다. 국내외 아나키즘을 총괄할 뿐 아니라, 관련된 여러 사조, 특히 동양의 노장, 불가, 유가 사상을 중요한 재로 등장시키고 있다. 루만을 위시한 괄목하기 어려운 수많은 이론가들을 거론하고 있다.

이 책이 보여주는 여러 장점 중에 저자가 우리나라 아나키스트 선구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점 (하기락과 일제 시대 아나키스트 조직 흑도회 선언문 부분은 특히 감동적이었다), 그리고 국내 여러 학자들의 최근 연구경향을 소상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.

야구 용어에 command라는 말이 있다. 투수가 그야말로 공을 갖고 놀 때, command라는 말을 쓴다. 이 책은 읽기가 편하다. 글쓴이가 그만큼 이 책이 다루는 문제에 대해 command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.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는 것 같다.

2. 평자는 이 책의 여러 주장에 아주 마음이 편하다. 공감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. 그동안---평자의 무지 탓이기는 하지만--아나키즘의 '비현실성'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갇혀 있었는데, 국가체제의 전면적 부정 등 사회적 아나키즘의 '시대착오적 망상'을 준열히 나무라는 대목 등에서 오해가 많이 걷혔다.

좌·우, 사회주의 자본주의 가리지 않고 명쾌하게 자기주장을 펴는데, 그 모든 논지가 합리적이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. 개인주의에 대한 저자의 이해에도 공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. 평소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,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주의에 대한 몰이해 또는 철학적 테러에 깊이 좌절해 오던 터라 이 책의 근간에 대해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.

이 책은 이념들 사이의 절충과 타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. 이념들의 화해와 화합을 주창한다. 우리가 절대진리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면 이런 자세가 불가피하다. 도그마야말로 지성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. 이런 점에서 이 책이 강조하는 잡종적 접근은 그 토대가 합리적이다.

3. 개인적 아나키스트인 저자가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왜 하필 미제스, 포

퍼, 하이에크를 주목했는지 궁금하다. 이들을 자유주의 나아가 급진 자유주의의 대표 이론가로 볼 수 있을까? 최소국가 개념을 쓴다면 노직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?

아나키즘과 이들 자유주의 사이에 이론적 친화력이 존재한다고 하는데, 과연 둘의 세계관이 얼마나 근사할까? “급진적 자유주의가 고삐풀린 자본주의를 길들일 수 있다?” “포퍼와 하이테크, 누구를 선장으로 삼아도 문제없다?” 국가 역할 둘러싸고 하이에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?

4. “이기심이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협동을 매개로 하는 이타심 필요”

개인주의가 자유롭게 전개되면 자발적이고 조화롭게 이타적-공동체적 집합주의로 확대될 수 있을까? 개인에서 연대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?

5. “최소국가론과 사적 소유 지지...국가를 서비스, 봉사기구로 제한”

“국가기능이 최소화되면 자본이 뒷문으로 등장, 늑대를 쫓아내니 여우가 등장”(604쪽)

여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?

6. “개인적 자유를 위한 시급한 과제”(849-860)

‘시급’하다는 것은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자의 문제의식이 가장 선명하게 표명되는 사례일 것이다. 그러나 이런 사례로는 이 책이 표명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. 문제의 본질, 보다 근원적 과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궁금하다. 이 책이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의 근본 지향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반면,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대목, 즉 그 구체적 작동 원리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고 있다.

7. 잡종적 접근의 최대, 최고 미덕은 절충, 흡수에 있다. 저자는 아나키즘, 자유주의에 덧붙여 “언젠가는 사회주의와도 잡종화할 수 있도록 삼두마차를 준비해야 한다”고 말한다.

이 대목에서, 실례지만, 마르크스가 존 스튜어트 밀의 절충주의를 ‘잡탕’이라고 조롱했던 장면이 연상된다. 각 사조, 각 사상은 나름의 근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상호 차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. 잡종적 접근은 잡종화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치중한 나머지 절충에 따른 모순,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듯하다.